제11장 덕(德)을 도우라

도 입

사람이 혼자서 스스로 덕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지위가 높아지면 아랫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을 띤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옳고 남의 생각이나 말이 옳지 않다는 태도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남의 충고나 아랫사람의 충심어린 건의 등을 묵살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나 윗사람이 되면 친구나 아랫사람의 말을 경청하여 자신의 허물을 고쳐야 그 조직이나 단체가 제대로 굴러가고 살아남는다.

이 장은 이처럼 율곡 선생이 선조가 임금으로써 덕을 쌓는 일을 돕고 아랫사람의 간언(諫言)을 따르고 허물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오늘날 단체의 지도자나 또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아랫사람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말이 되겠다.

본 문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유익한 벗이 셋이요, 해로운 벗이 셋이다. 친구가 곧고 친구가 진실하고 친구가 들은 것이 많으면 유익하다. 친구가 몸가짐은 익숙하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남의 비위만 잘 맞추고 입으로만 아첨을 잘 하면 해롭다."

[서경]

신하가 바르면 임금도 바르고, 신하가 아첨하면 임금은 스스로 성인(聖人)이라고 여긴다. 임금을 덕이 있게 하는 것도 신하이고, 부덕(不德)하게 하는 것도 신하이다.

[시경]

『시경』에 말하였다. "의지할 이도 있고 돕는 이도 있으며 효성스러운 이도 있고 덕스러운 이도 있어서, 앞에서 인도하고 좌우에서 도우니, 화락(和樂)한 군자를 사방에서 본받도다."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사람 잘못 쓰는 것을 책할 것이 아니며, 정사를 비난할 것이 아니다. 대인(大人 : 큰 덕이 있는 인물)이라야만 임금의 마음이 그른 것을 바르게 하나니, 임금이 어질면 어질지 않은 이가 없고, 임금이 옳으면 옳지 않은 이가 없으며, 임금이 바르면 바르지 않은 이가 없다. 한 번 임금을 바르게 하면 국가가 안정된다."

[서경]

이윤(伊尹 : 상나라 재상)이 태갑(太甲 : 상나라 임금)을 훈계하여 말하였다. "아, 선왕께서는 간하는 것을 좇아 거스르지 않으시고 선민(先民 : 선배 또는 옛 덕)들을 따랐습니다."

[서경]

말이 당신 마음에 거슬리면 반드시 도(道)에서 찾아보고, 말이 당신 뜻에 공손하면 반드시 도가 아닌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서경]

부열(傅說 : 상나라 현신)이 왕에게 말하였다. "나무를 자를 때 먹줄을 따르면 바르게 되고, 임금이 간언을 좇으면 성군이 됩니다. 임금이 지극히 성스러우면 신하들은 명령하지 않아도 그 뜻을 받들 것이니, 누가 감히 왕의 아름다운 명령을 좇지 않겠습니까."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잘못을 정직하게 일러주는 말을 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잘못을 고치는 것이 소중하다. 완곡하게 일러 주는 말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뜻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 소중하다. 기뻐하면서 실마리를 찾지 아니하고, 좇는 체하면서 고치지 않는다면, 나도 어찌할 수 없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잘못하였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허물이라고 한다."

[주역]

공자가 말하였다. "안씨(顔氏)의 아들(제자 안회를 말함)이 거의 도에 가깝구나. 자기에게 불선(不善)한 것이 있으면 알지 못한 적이 없고, 알면 다시 행한 적이 없었다."

[율곡의 풀이]

임금의 덕업(德業)을 도와 이루는 데는 바른 선비를 가까이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 또 반드시 간언을 따르는 것과 허물을 고치는 것을 합하여 한 장(章)으로 한 것은, 임금이 어진 선비를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선(善)을 취하여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간언이 있으면 반드시 좇고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는 것이 곧 덕(德)을 진취시키고 선업(善業)을 닦는 데 도움 된다. 만일 그저 그 어진 선비의 명성만을 흠모(欽慕)하여 공연히 측근에 두고는 간하는 말이 있어도 좇지 않고,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다면, 어진 선비가 어찌 헛된 예우(禮遇)에 얽매어 자기의 지조를 잃으려고 하겠는가? 반드시 그 조짐을 보아 물러나서 은거(隱居)를 즐기려고 하여, 임금의 측근에 있는 자들은 아첨하여 총애를 얻으려는 무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 망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 일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현인(賢人)이라고 하는 자가 앉아서 영화와 총애를 받으면서, 충성스럽고 바른 간언으로 임금의 허물을 바로잡아 구해 주는 도움이 없다면 또한 현자를 어디에 쓰겠는가? 그러므로 현명(賢明)한 임금은 바른 선비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서 날마다 함께 있으면서 그 훈도로 함양(涵養)하여, 자기의 욕심을 이기고 선(善)을 좇아 덕업(德業)이 날로 높아지고 넓어진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임금의 덕의 성취는 경연(經筵)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 하였다.

해 설

아! 율곡 선생의 이 말이 어찌 옛날에만 해당되겠는가? 비록 지금에는 임금이나 신하의 직분은 없지만, 윗사람 되고 아랫사람 되는 직책은 오히려 더 많지 않은가? 국가나 기업에서부터 크고 작은 조직이나 단체, 심지어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지도자나 책임자의 덕은 더 절실히 요구되는 점이 아닌

가?

덕이란 얼핏 보면 개인적 인격 수양과 관계되는 가치이긴 하지만, 그 개인이 국가나 기업 그리고 단체나 조직을 맡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직장생활을 해 보면 알겠지만 직장의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직장의 역할과 성과(成果) 심지어 운명이 좌우된다.

따라서 지도자가 동료나 친구 그리고 아랫사람으로부터 올바르고 정당한 의견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허물 곧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행한 일조차도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아첨하거나 기분 맞추어 주는 말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약을 먹는 것처럼 비록 마음에는 거슬리지만 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가까이하고 크게 써야 한다.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대통령이 바로 측근의 말만 듣고 나라를 잘못 이끌어 비극적으로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역사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과거 폭군으로 알려진 임금들 또한 그런 전철을 밟았다. 심히 경계할 일이다. 기업 또한 그런 자가 맡고 있다면 망하는 일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가정 또한 가장이 아내나 자녀의 올바른 견해를 묵살하면 불행한 가정이 될 것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임금이 교만하면 현자는 멀리 달아나 숨어버리고 조정은 소인배들로 득실하게 된다고 한다. 하물며 보통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겠는가? 조선 시대에 어떤 대유(大儒 : 큰 선비)는 평생 남을 존중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버리고 남의 선을 좇았다고 한다. 반면에 어떤 시골구석의 촌유(村儒 : 시골뜨기 비루한 선비)는 평생 자기만을 높이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겠는가?

2. 이목(耳目)의 욕구에 부림당하지 아니하면 백 가지 법도를 바르게 한다는 말이 있다. 이목의 욕구에 부림당한다면 백 가지 법도를 허물어지게 한다는 말이다. 귀의 욕구가 무엇이겠는가?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이런 귀의 욕구를 이기고 남이 일러주는 귀에 거슬리는 좋은 말을 따르기란 여간 쉽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귀의 욕구도 따지고 보면 제 자신의 욕구일 뿐이니, 이것을 이기는 일이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좋은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3. 율곡 선생은 덕을 도우라는 이 보덕(輔德) 장의 의의를 임금으로 하여금 정직하고 현명한 선비를 가까이 하여 그 간언(諫言)을 좇아서 허물을 고치는 데 두고 있다. 임금이 정직하고 현명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간언을 따르지 않고, 허물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한 개인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임금의 경우 :

   *개인의 경우 :

5. 여러분은 평소에 나의 단점이나 잘못을 말해주는 친구(동료)나 후배 또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기혼자라면 아내나 남편이 나의 허물을 말해 줄 때 혹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왈 익 자 삼 우 손 자 삼 우 우 직 우 량 우 다 문
子曰 益者가 三友오 損者가 三友니라. 友直하고 友諒하고 友多聞이면
익 의 우 편 벽 우 선 유 우 편 녕 손 의
益矣요 友便辟하고 友善柔하고 友便佞이면 損矣니라(『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益 : 유익하다/者 : ~것/友 : 벗, 사귀다/直 : 곧다/諒 : 진실하다, 믿다/多 : 많다/聞 : 듣다/矣 : 문장 뒤에 붙는 종결의 어조사/便 : 편안하다, 아첨하다/辟 : 편벽되다, 피하다/善 : 잘하다, 착하다/柔 : 부드럽다/佞 : 아첨하다

*便辟 : 몸가짐은 익숙하지만 정직하지 못함(주자 주)

*善柔 : 아첨하여 기쁘게 하는 데에는 빼어나지만 진실하지 못함(주자 주)

*便佞 : 입으로 말하는 데에 익숙하지만 듣고 본 실적이 없는 것(주자 주)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다문(多聞) : 보고 들은 것이 많음

*익자삼우(益者三友) : 유익한 세 종류의 벗

해석

공자가 말하기를 "유익한 벗이 셋이요, 해로운 벗이 셋이다. 친구가 곧고 친구가 진실하고 친구가 들은 것이 많으면 유익하다. 친구가 몸가짐은 익숙하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남의 비위만 잘 맞추고 입으로만 아첨을 잘 하면 해롭다."고 하였다.

약 약 불 명 현　　궐 질 불 추　　약 선 불 시 지　　궐 족 용 상
若藥弗暝眩하면 厥疾弗瘳하고 若跣弗視地하면 厥足用傷이라(『서경』).

한자 풀이와 해설

若 : 만약/藥 : 약/弗 : 아니다/暝 : 어둡다, 아찔하다/眩 : 아찔하다/厥 : 그/疾 : 질병/瘳 : 낫다/跣 : 맨발/視 : 보다/地 : 땅/足 : 발/用 : 쓰다, 행하다/傷 : 상처

*병렬문으로 주요 문장의 동사는 瘳와 傷이다.

*뒤 문장 跣은 동사로 쓰였고, 주어는 일반사람이다.

*글의 의미는 좋은 충고는 듣기 싫어도 듣고, 자신의 행동(허물)을 잘 살피라는 뜻이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暝眩(명현) :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함. 또는 한의학에서 약을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기증을 가리킴

해석

약이 어찔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고, 맨발인데 땅을 잘 보지 않으면 발이 상하게 된다.